

광주시-추진단 엇박자... 문화특구 조성사업 난항

문화산업 없는 '깍뎀기 문화수도' 되나

정부·지자체 선행 투자 없어 1년째 민자 유치 시도도 못해

광주 문화수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없는 깍뎀기기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의 문화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민자 유치 프로젝트인 문화특구(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기대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의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로 국가·지자체의 투자가 선행되지 못해 사업 추진 1년 여 동안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엇박자' = 광주시는 표면상 투자진흥지구 지정·조성을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8조를 들어 문화중심 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과의 공동사업을 망설이고 있다.

특별법은 "광주시장은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민자유치를 추진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해줄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추진단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에 민자 유치계획의 수립이 포함돼 있는 데다 사업의 대상지, 수혜자가 광주시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추진단이 지난해말 확보한 투자진흥지구내 동부경찰서 부지 구입비 30억원이 묶여있다. 국·시비 공동 부담이 이뤄져야 사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지자체의 재원투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조성 효과=투자진흥 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지정 요건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8월 투자진흥 지구 지정 용역을 실시, 투자진흥지구 조성 우선 대상지로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 일대 부지 1만5천283㎡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일

주 기업 등에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다수 문화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문화산업체를 위한 공동제작시설·창업보육센터, 마케팅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국·시비 지원이 이뤄진다.

추진단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산업체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10층(7천300㎡) 규모의 문화산업벤처타워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일빌딩 부지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251객실을 갖춘 특급호텔의 건립도 고려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시 5·18을 맞으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 50여명이 14일 5·18 광주민중항쟁 29주년을 앞두고 북구 운동동 국립 민주 5·18묘지에서 5월 희생자들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민중항쟁 기념일에 맞춰 5월 영령들의 묘역을 돌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병훈 추진단장 "공사 더 지연될 문화전당 건립 물 건너갈 수도"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옛 도청별관 문제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낮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으로 2012년 완공 계획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오는 2012년 12월로 전담 완공시기를 늦춘 만큼 더 이상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전당 건립에 대해 "세계적인 복합문화센

터로 자리매김하려면 개관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광주는 온통 도청 별관 문제로 집중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5·18광주민중항쟁 29주년을 맞아 지역적인 쟁점이 다시 부각되는데 2005년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을 만나 공청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는데 이제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 때 광주시가 강하게 요구하고 시민이 열원해서 국책사업이 된 만큼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R&D특구 평동·소촌산단까지 늘려야

육성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 연구·개발(R&D)특구'는 미래융합기술연구원과 녹색기초기술연구원을 두 축으로 조성하고, 극초단 광양자빔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를 핵심시설로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에 의뢰한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R&D 특구의 핵심개념은 미래융합기술과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미래대비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주력산업의 녹색화·고부가가치화, 신기술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을 꼽았다.

미래융합기술연구원은 극초단 광양자빔 시설을 중심으로 광·나노 융합연구센터, 광기반 보안연구센터, 식품·약품연구센터를 배치하고 기존의 FTTH 기반시설을 활용해 이들 연구시설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녹색기초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클린디젤연구센터, 녹색정보대전연구센터, 친환경부품소재연구센터를 배치하는 한편 각 분야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15일 광주 R&D 특구와 관련 연구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특구비전 및 전략,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특구의 범위 및 콘텐츠를 확정지를 예정"이라며 "이번 용역은 정부가 약속한 '5+2 광역경제권'에 추가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수용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시는 R&D특구가 지정될 경우 매년 600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확보, 고급 연구인력, 자본, 연구기관,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게 돼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R&D 특구가 광주의 신성장 중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특구의 범위를 지역 내 산업단지까지 포함시켜 지역산업구조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와 함께 미래 원천기술을 산업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구의 범위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남부대, 하남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의 R&D 특구 지정 요건 중 특구 내에 대학 3곳이 위치하고, 하나의 특구로 조성해야한다는 부문을 염두에 두면, 호남대나 광주여대, 광동산업단지, 소촌산업단지 등까지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d@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 누구?

류우익·임상규·홍승용·송정호씨 등 거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장소유 조 직위원장인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뒤 2개월째 공석인 위원장 후 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은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후임 위원장의 역량이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상규 전 법무부장관, 홍승용 전 해양수산부 차관(현 인하대 총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김병일 조직위 현 사무총장, 김재균 전 국토해양부 2차관, 유정석 전 해수부 차관 등이다.

이 가운데 류우익·임상규·홍승용·송정호씨는 관리형 인물로, 김병일·김재균·유정석씨는 실무형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민자유치 사업 무

산 등 일부 약재가 겹쳐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선 국가예산 지원을 늘려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관리형' 인물이 뽑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류우익씨 등 역량이 출중한 '거물급'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삼득 의원과 이재호 전 의원 등 현 정권의 실제 인물인 더 좋겠지만, 어찌 됐든 힘 있는 인물이 후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수엑스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진들은 관리형 인사보다는 실무형 인사를 선호하고 있다. 앞으로 여수엑스포 개최 전까지 '불도저'처럼 일을 추진해 갈 실무형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권일기자 cki@

062-515-7600

우리나라 다시보기 제주도 재발견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섬 제주도만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곳!!

최대한 흥미로운 산악의 상 비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박+선박 149,000원

항공+항공 249,000원

- 편도만 당일 출발 / 조조편기

"5월~6월"

전일정 제주출발

도/학/기/준

- 편도만 당일 출발 / 조조편기
- 편도만 당일 출발 / 조조편기
- 편도만 당일 출발 / 조조편기
- 편도만 당일 출발 / 조조편기